



▲워싱턴주 오번 시(市) 볼트 갤러리(Vault Gallery) 초청 펠리 헤정 백(Kelly Haejung Paik) 개인전 「Contained Radiance(절제된 화려함)」 전시장 입구에서 바라 본 백 작가의 전시작품 일부. 펠리 헤정 백 작가 제공.

펠리 헤정 백 작가, 4월10일까지 오번 시 볼트 갤러리 초청 개인전 [Visual Arts]

‘절제된 화려함’, 한국 전통 달항아리의 현대적 재해석... ‘K-아트 홍보대사’로 자리매김

오번, 워싱턴(김정태 기자)-펠리 헤정 백(Kelly Haejung Paik) 작가가 오번에 있는 볼트 갤러리(Vault Gallery) 초청 개인전 「Contained Radiance(절제된 화려함)」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1월15일 막을 올린 백 작가의 초대 개인전은 한인사회를 포함, 주류사회 관객들의 큰 관심 속에서 4월1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 중이다.

백 작가는 오번 시 예술위원회(City of Auburn Arts Commission)의 선정을 통해서 ‘볼트 갤러리 초청 개인전’을 갖게 되었다.

백 작가는 2025년 시애틀 루미나타 페스티벌(Luminata Festival)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Luminous Offering”을 통해 5,000명 이상의 관람객과 소통했으며, 베다니 장로교회(Bethany Presbyterian Church)에서 공공미술 커미션 “Offering: Seven Korean Vessels” 등을 통해 한국 전통 기물의 현대적 해석 작업을 지속해 왔다.

백 작가는 초대 개인전에서 조선시대 백자 달항아리의 미학을 현대적 색채 언어로 재해석한 작업을 선보인다. 작가는 달항아리 고유의 ‘비움과 충만’, ‘절제와 화려함’이라는 이중적 미감을 회화, 한지 설치, 그리고 실제 항아리 제작을 통해 입체적으로 탐구한다.



▲워싱턴주 오번 시(市) 볼트 갤러리(Vault Gallery) 초청 펠리 헤정 백(Kelly Haejung Paik) 개인전 「Contained Radiance(절제된 화려함)」 전시장 일부. 펠리 헤정 백 작가 제공.

대한민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자, 20세기 한국 현대 미술, 특히 단색화를 대표하는 화가였던 김환기(1913-1974)는 달항아리를 즐겨 다뤘다. 그는 1963년부터 뉴욕 록펠러 3세가 설립한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으며 뉴욕에 정착, 뉴욕 아시아 하우스 갤러리에서 17회 개인전을 갖는 것을 비롯해서 타스카 갤러리, 고담서적 갤러리, 포인텍스터 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가지면서 한국의 산천과 하늘, 달과 구름, 백자와 진통무늬 등 매우 한국적인 소재를 가지고 점점 추상화시켜 점, 선, 면으로 이를 나타내는 진면점화 등으로 한국 예술을 널리 알렸다. 김환기는 숨지기 한 해 전에 대표적인 진면점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서울 한국국립현대미술관 경복궁미술관 소장)’를 탄생시켰다.

김환기는 “이것 백자는 흰색을 상징하는 민족의 상징이다. 나는 수백년 만에 백자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라는 주제로 재해석했다.”

심판기인 '이소 역사다...아름께 만중악단' 민족이 아니므로 '종교'가 아닌 '신체(玉體)'이고, '결기 방아리를 그리는 것은 조상들의 피의 유전'(김환기, 연대미상 '무제 I',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문예마당, 1995.p.215 / 김환기, 표지의 말, 현대문학, 1956년 5월, np.)이라고 설파했다.



▲켈리 헤징 백 작가가 2026년 1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워싱턴주여성미술가협회 "겨울 속 사물은 실체보다 작아 보인다" 그룹전이 진행 중인 시애틀 필리피아 센터 WPW 갤러리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Kelly Haejung Paik • PAIK STUDIO 홈페이지 감무리.



▲워싱턴주 오번 시(市) 볼트 갤러리(Vault Gallery) 초청 켈리 헤징 백(Kelly Haejung Paik) 개인전 「Contained Radiance (일체된 화려함)展」 전시 작품 일부.-켈리 헤징 백 작가 제공.

백 작가는 이같은 김환기의 예술혼을 이어가면서, 오늘날 전통적 달항아리의 백색 절제미와 현대적 색채 감각을 접목시키고 하나의 조형 언어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예술미를 극대화시켰다는 점이 돋보인다.

“주년의 그림들은 각각 동일한 항아리를 소재로 삼아 하나의 색을 뽑아내어 겹겹이 쌓인 붓질을 통해 그 색을 증폭시킵니다. 그림들은 항아리에 스며든 부드러운 색조를 반영하여, 그 색을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항아리의 형태는 평면적인 배경 위에서 입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그림은 항아리가 받침대 위에 조용히 놓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른 그림들은 아시아 장식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잉어를 등장시켜, 유려한 몸체가 항아리 안에 담겨 있거나 항아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암시합니다.”-켈리 헤징 백 작가 노트.



▲켈리 헤징 백 작가가 런던 소재 시애틀 베다니장로교회 초대 공공미술작품 '한국 전통 그릇 7점'이 설치된 교회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Kelly Haejung Paik • PAIK STUDIO 홈페이지 감무리.

백 작가는 지난 해 시애틀 Luminata Festival(9월)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Luminous Offering"을 통해 5,000명 이상의 관람객과 소통했으며, ACES 갤러리에서 열린 팝업 전시에 선정되어 참여한 2025 유색 인종 예술가 엑스포 & 심포지엄(10월 17일-11월 8일), Bethany Presbyterian Church(7월 1일-11월 30일) 공공미술 커미션 "Offering: Seven Korean Vessels" 등을 통해 한국 전통 기들의 현대적 해석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백 작가는 한국 도자기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연작의 연장선에서 끊임없는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다. 그는 달항아리 형태를 단순화함으로써 색채, 균형, 광채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며, 전통과 추상이 조화와 변형의 정수를 담아낸 작품을 완성하고 있다.



▲켈리 혜정 백 작가가 2025년7월11일-2026년1월15일까지 쉐넬 쇼케 시애틀 미스트 밴드리 '정체를 넘어: 초현실적인 비전'에서 개최되었던 시애틀 북원 공공 미술 설치 작품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다.-Kelly Haejung Paik • PAIK STUDIO 홈페이지 닫기

**켈리 혜정 백 작가, 학자에서 전업 작가로 변신
문화적 정체성의 시각화 통해 K-아트 홍보에 앞장**

백 작가는 서울 출생으로 KBS 방송국 기자 및 아나운서로 활동했다. 그녀는 뉴욕의 명문 시라큐스대학교(Syracuse University)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예술 활동을 병행해 왔다.

최근 전업 작가로 전환한 이후, 한국 문화유산을 현대 미술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백 작가는 워싱턴주 공공미술가 로스터와 시애틀시 공공미술가 로스터 등 서북미 주류사회 미술계에 '한국의 전통미를 구현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K-아트 홍보대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녀는 워싱턴주여성미술협회와 워싱턴주한인미술인협회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더 볼트 갤러리, 포스트마크 예술 센터
20 Auburn Ave, Auburn, WA 98001

갤러리 관람 시간: 수요일 12시~4시
목요일 12시~6시
금요일 12시~4시

김정태 munhwausa@gmail.com

프린트 | 이메일보내기 | 스킨 | 트위터로보내기

시애틀문화저널^e

기사에 대한 의견 (0개)

등록순 | 추천순 | 반대순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후 기사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원칙 | 내가 쓴 의견보기

이진숙 | 이진숙 작가, '2026 대한민국 오늘의 작가경선展-서양화 부문' 한국미협 이사장상 수상

주요뉴스

- 켈리 혜정 백 작가, 4월10일까지 오먼 시 볼트 갤러리 초청 개인전 [Visual Arts]
- 이진숙 작가, '2026 대한민국 오늘의 작가경선展-서양화 부문' 한국미협 이사장상 수상
- 오리건주 포틀랜드 '파월스 북스', '머지막' 구조조정 [Local News]
- 스캐어크로우 비디오, 시애틀 N 디스트릭트의 오랜 건물 매입...20명 넘는 후원자 개인 대출이 원동력 [Local News]
- 인시아프리카갤러리 '2026 신년기획-6인작가초대전' 리셉션, 화기에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이전페이지로 | 뒤로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 저작권안내 | 기사회원신청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TOP | RSS

시애틀문화저널^e

시애틀문화저널(munhwai.com) 창간: 2011년 2월 11일

발행인: 김정태(미국 206-566-3850 / 한국 010-8302-0612) munhwausa@gmail.com
 편집인: 스티브 김(학수 010-5786-5978) munhwausa@gmail.com
 고문: 김포산(미국 360-451-2475) munhwausa@gmail.com
 소재지 :3711 Griffin Ln OLYMPIA, WA 98501, USA
 webmaster@munhwai.com 관리자접속